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3.40원 하락한 1,502.40원에 마감

8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528.20원(15:30 기준) 대비 11.70원 하락한 1,516.50원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
환율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주식 예약증서(ADR) 상장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 이날 실제로 선물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키워 전일대비 10.08원 하락한 1,505.0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장중 변동 폭은 24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23.10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16.50	1522.50	1498.10	1505.00	1509.90
	엔화	936.62	937.61	923.00	923.10	-
	유로화	1728.91	1735.40	1711.32	1713.83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93	-3.61	-7.82	-15.35
	결제환율(수입)	-0.6	-2.48	-5.63	-11.77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수급 개선 기대감에...1,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0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98.50, 15:30 기준) 대비 7.40 상승한 1,504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수급 개선 기대 등에 하락 전망한다.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공습을 단행하는 등 미-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으나,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선을 그으며 달러가 다소 약세로 돌아섰고 국제유가의 오름폭이 축소되었다.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일 달러/원 환율에 미칠 영향도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. 한편,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의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감 등이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, 고점 인식이 강해진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더해진다면 하락 폭 확대될 수 있다. 또한,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진 가운데,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원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다만, 저가 매수 유입과 잔존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97.50 ~ 1513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3436.8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.4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348.39, -576.76p(-1.0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9.1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431 억원